

위드코로나에 계절적 요인 겹쳐 '폭발'

코로나 감염자 확산 원인?

방역 완화 이동·접촉 대폭 늘어

감기·미세먼지 급증 감염 혼동

학생 등 학교발 확진자 급증

광주·전남 병상은 아직 여유

11월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배경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완화와 함께 계절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면서 모임 기회가 대폭 늘어난 데다 감기마저 유행해 코로나 19 조기 발견과 확산세 차단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병상 배정 대기자 수가 800명을 웃도는 수도권과 달리 광주와 전남은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인 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259명이 신규 확진됐다. 금요일인 지난 19일 광주 39명, 전남 66명(105명), 토요일인 20일 광주 70명, 전남 38명

(108명), 일요일인 21일 오후 2시 현재 광주 38명, 전남 8명(46명) 등 연일 100명 이상이 신규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는 우선, 정부의 방역책 전환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방역책이 전환되면서 모임 인원 제한 완화, 식당 등 영업시간 완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타지역 방문과 모임이 활발해진 것이 확진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계절적 요인이 꼽힌다. 환절기 일교차 큰 날씨로 인해 감기 환자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감염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학교와 병원 등을 오가며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확진자 급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나쁜 날이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기마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 전파가 쉬운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전남에서 최근 닷새간 17개 학교에서 학생 63명을 포함한 학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며 급속히 확산한 것도 코로나를 감기로 혼동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달 들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과 지인

간 모임 등 이동과 접촉이 대폭 늘어났다. 접촉이 늘면서 코로나 19 감염이 늘었고 환절기 감기마저 유행하면서 확진자 조기 발견이 늦어지면서 확산세 차단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최근 학생 확진자들 대다수가 발열 없는 기침, 인후통 증세를 보이는 만큼 학교와 가정, 병원에서의 조기 검사 권고와 확산세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가 광주·전남에서는 불거지지 않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21일 새벽 0시 기준 80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19에 확진되더라도 곧장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날 새벽 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병상 가동률은 42.3%로 절반가량 병상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전대, 조산대, 화순전대병원)은 39개 중 24개가 사용 중이며 15개가 남아있다. 중등증 치료 병상(공공의료원 등 10개 의료기관)은 490개 병상 중 162개가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328개에 이른다. 경증 환자를 돌보는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292개 중 161개를 사용하고 131개를 남겨둔 상황이다. /최현배 기자 khk@kwangju.co.kr

나주·강진서 고병원성 조류 AI 잇따라 확진

전남 올가을 3개 농장 확진

오리 9만2000마리 살처분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가을 들어 육용오리 농장 2곳, 종오리농장 1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와 오리 9만2000여 수가 살처분됐고, 종오리 농장 확진 여파로 함평지역 부화장 알 40여만 개가 폐기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도 나온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나주와 강진 오리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나주 확진 사례는 세지번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했다. 가축방역 당국이 지난 17일 정기 검사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19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3만1000수를 살처분했다.

강진에서는 신전면 종오리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2주 1회 시행되는 정기 검사에서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어 정밀 검사에서 20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당국은 발생농장 종오리 2만 4300수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이어 확진 사례가 나온 강진 종오리 농장 알 등 40여만 개가 보관 중인 함평지역 부화장 알 전량을 폐기 처분했다.

전남에서는 21일 현재 올가을 들어 모두 3개가 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육용오리 2곳, 종오리 1곳 등 모두 오리농장이다. 살처분된 가금은 9만2700수에 이르고 폐기 처분된 오리알은 40만 개를 웃돈다. 전국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6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전남 3곳, 충북 3곳이다.

전남에서는 257 농가에서 오리 약 434만 수를 사육 중이다. 이는 전국 800만 수 대비 54% 수준이다. 닭은 전남 349 농가가 2324만 수를 기르는데, 이는 전국 1억7300만 수의 13% 수준이다. 오리 농가 절대다수가 나주와 영암에 집중돼 이들 지역을 오리사육 벨트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1건(닭·3·오리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81만수가 살처분됐다. 전국에서는 109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993만 수가 살처분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도, 5년간 관광에 2조9000억 투입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내년 전남 방문의 해 추진위 발족

전남도가 전남 관광자원의 고도화와 편의·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1년간 전남 방문의 해 운영을 위해 지난 19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관광을 매개로 한 전남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21일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5년 간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전남 관광개발 전략과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도청 영인실에서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22개 시·군 관광부서장,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전남대·호남대 산학협력단의 계획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시·군의 질의·응답,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국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년)'과 연계해 도가 추진할 구체적 관광개발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제7차 관광개발계획의 비전을 '남해안 시대 해양·생태 관광 허브 블루투어 전

남'으로 설정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도약 ▲안전한 체류관광 기반 구축 ▲도민중심 공공관광 환경 조성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체험관광 육성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권을 ▲휴양·웰빙 테마의 북부관광권 ▲섬 관광-해양 생태 테마의 서부관광권 ▲역사·문화 테마의 중남부관광권 ▲남해안 관광거점-레저 테마의 동부관광권으로 구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 발굴 ▲남해안 북방관광 거점 조성 등 8개 전략과 64개 전략별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만의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의 기반이 될 이번 계획은 도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전남도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회장, 문규중 행정부지사와 오창희 한국여행업 협회장(KATA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위원은 여행업계, 학계, 언론인, 도의원 및 공공기관 대표 등 24명으로 이뤄졌는데, 추진위원회 분과는 기획총괄, 관광기반 조성·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민관협력 4개로 각각 5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1일 광주 광산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1.5% 대기자 804명...하루새 145명 늘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804명으로 늘었다.

전날 0시 기준으로는 659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145명 증가했다.

병상 대기자 규모로는 관련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기존 최대 기록은 지난달 3일의 774명이다. 이 중 2일 이상 대기 중인 환자도 전체 대기자의 절반이 넘는 478명에 달했다. 다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각한 중증 환자를

우선 배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2일 이상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연일 2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 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병상 유형별로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거나 80%에 근접하면서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6837-4700

5억 이상 투자
경기, 수도권
하실 분. 010-3605-50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산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및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통게이트 300m 지정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퍼스.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힐즈빌) 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부 010-3454-2389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

99% 적중률...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

장소 3층 길부동산맨토스쿨(힐스테이트 3단지 앞)
일시 2021.11.25(목), 27(토) 오후2시/7시
문의전화 010-5632-5209(사전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투자 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 1강의**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
 - 꼭 알아야 할 광주 중요지역 분석
 - 3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갭투자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 가치 분석 기법
- 2강의** "황금 개발지 토지" 성공 투자법 공개
 - 광주/전남 지역 내의 "최고 가치" 매물 대 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필승 농지 투자법 대 공개
 - 소액 토지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공개
 - 전국 지역 예타면제사업 토지 집중분석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MTN/나투데이-김성민의 비즈칭보스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특집 특선 한국인 선정)
(현) 광부동산맨토스쿨 대표
(현) 광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L&A빌딩중개사
(현) 각종 언론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300회 이상 강연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연
뉴스에이 인터넷신문 발행 매거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1년 11월 18일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총액 금 3,805,000,000원을 금1,805,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1주 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380,500주 중 200,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 식의 총수를 180,500주로 하여 감소할 것 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 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11월 22일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174611-0014718)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2길 20(장천동)
대표이사 임병진

합병에 따른 채권자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자메스엔터는 2021년 11월 19일 주주총 회에서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아이와 합병할 것 을 의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합병에 의 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게 이의를 제출하시고, 주주 및 권리자에서는 해 당기간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존속법인: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아이
(2) 소멸법인: 주식회사 자메스엔터
(3) 합병방식: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아이: 주식회사 자메스엔터 = 1 : 0으로 합병에 따른 신규발행은 0주입니다.
(4) 합병방식: 주식회사 자메스엔터: 주식회사 자메스엔터(합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자메스엔터는 소멸함

2021년 11월 22일
주식회사 자메스엔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천2길 20(장천동 202호)(에촌동)
사내이사 이윤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1952년 창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11월28일(일)
▲광주서산악회 11월28일(일) 강원도 춘천,삼악산 645m(주봉)·용화봉,청원봉,등선봉.&남양,트레킹산행. 영주체육관03:30.동아병원03:35.롯데점점03:40.광주역03:45.문의:062)555-비엔주자장 04:00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